

제1차 이사회 회의록

2019. 1. 22.

이범주 사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2019년도 제1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성원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이사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관 의장 :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협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새로운 이사님을 오늘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부회장님이신 박상욱 주식회사 하이오아시스 감사이십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사회에서 통과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사회 끝나고 난 뒤에 부회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신분이 계셔서 이사님들에게 미리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부회장님 및 이사님을 오른쪽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열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윤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송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윤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동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성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복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희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박정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재적이사 19명중 13명 참석으로 규약 33조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제가 협회를 맡아서 2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남은 시간 재미있게 더 지냈으면 좋겠고 그동안 이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보시다시피 협회가 안정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는 저희 협회가 더 대회적인 여건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남북체육교류위원회하고 같이 북한에도 한번 북한에는 사실 장애인선수단들이 탁구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탁구도 사실 당간부에 아들이 하는 실상이라서 북한에도 장애인테니스를 전파를 해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려면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관심, 사랑,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 나옵시다만 올해는 아마 2300만원정도 흑자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도지부까지 본회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2019년도 파이팅하면서 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보고사항 제1항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회순에 따라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를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전차 이사회 초록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이사회 안건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11시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2층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23명중 12명이 참석하여 2018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전차 이사회 초록 2018서울코리아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결과, 2019 국제시리즈대회 개최일자, 2018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선발, 임원사임을 원안대로 접수해 주셨으며, 심의 안건으로는 2019 국가대표 선발계획안, 사무국운영규정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2시에 폐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전차 이사회 초록을 보고 의견 있으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및 이사 :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보고사항 제2항 「임원 사임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본회 임원 사임 보고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임원 교체건은 임원분들이 협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신 분들인데 지금 현재 참석이 사실은 거의 없으십니다.

제가 좀 있으면서 본 결과 첫해년도에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더 이상 협회에 도움이 안되어서 부회장 두 분하고, 이사 두 분에 대한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용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들제약 한의상 회장님과 미애부 장석영 회장님 두 분이 저희 협회 부회장으로 계셨는데 첫 해는 참석하셨는데 작년에는 전혀 참석하지 못 하였고 강민구 이사님과 이석우 이사님도 거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조금은 실무를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이사님을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사임 처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회장 및 이사 : 이의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이의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의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제1호 심의안건인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를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질문이 있는데 안건이 지금 10개나 있는겁니까?

박정관 의장 : 네

문경로 부회장 : 4,5,6,7,8,9번 까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내놓은거라 안건을 이렇게 심의 하지 마시고 1, 2, 3456789, 10번 임원 보선의 건 이렇게 네가지 안건으로 정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일단은 4번부터 8번에 대한 내용들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도록 하고요 국가대표에 대한 안건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것만 분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있고요 8페이지부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2018년도 행정 및 회계감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감사님께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감사 : 안녕하십니까 감사 이송입니다.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규약 제29조 4항 회계규정 31조 1항에 의거 2019년 1월 9일부터 약 2일간 실시한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에 대한 2018년도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2018년도 결산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지침 및 현행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재원별 세입·세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2018 회계연도 예산은 9억3천1백만원 이였습니다.

9억2천6백만원이 지출되고, 2백4십만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백3십2만8천원이 반납될 예정입니다. 반납액 중 1백9십7만1천원은 인건비 예산이며, 퇴직한 전임대리 퇴직충당금하고 협회 그만둔 직원들 중에 사대보험과 복리후생비에서 기금에서 남은 금액을 반납할 예산입니다. 3십1만원은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출 후 반납금액입니다.

반납해야 하는 예산은 불가피하게 미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예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해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신바와 같이 남은 금액은 실제 저희들이 반납해야 할 금액이고요 특히 반납해야 할 금액은 2017년도 회계연도는 저희들이 처음 와서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꽤 많은 반납금액이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퇴직에 따른 약 2백4십여만원에 대한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9억3천만원 정도 거의 10억정도 되는 예산에서 알뜰하게 사무국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맡았을 때 꽤 많은 금액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맞춰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정적으로는 흑자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들 보시고 행정감사에 대한 안건은 배부해드린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보고서 및 2019년도 예산(안)」 행정감사 보고서를 14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이송회계사님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바쁘시고 큰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와중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회계감사를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감사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이종운 감사님께서 행정감사를 해주신거죠? 통합대회에서 서울하고 대구에서 그 기금이 지역에서 하는건지 지역이 여기에 신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신청받아서 공모하였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공모사업인데 공모가 안들어온건지 아니면 배부를 임의대로 서울에하고 대구에 한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관 의장 : 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상반기는 서울이외에 아무 지역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방건도 마찬가지로 대구만 신청이들어 와서 대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보면 광주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매년 서울, 대구에서만 몇 년째 하는 것 같은데 열악한 곳을 체육회에다 말을 해서 유치를 하던가 해서 지역발전에 균형을 맞추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박정관 의장 : 저희들 예산안이 한계가 있다 보니 시도지부에서 자비로 마련해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지부를 예를 들면 2천만원이 필요한데 회장님이 1천만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1천만원 이렇게 2천만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대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도로 예산안이 1천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작년에 광주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여서 한다 못한다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대구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도지부에서 별도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문경로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하면 좋습니다. 올 해 인천에서 한번 하시죠?

문경로 부회장 :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왜 안하느냐고 물어보니 인천 협회에서 공모를 안올렸더군요. 왜 안올렸냐고 물어보니 계획성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협회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던지 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대구가 공모했으니 대구에서 하는게 아니라 올리는 서류가 번거로우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동수 이사 : 그런부분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지방비가 확보되는데 예산은 아

마 그전에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년도에 미리 총복이한다 광주가 한다 미리 정해져 있으면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확정된 상태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당연히 확보할 수가 없는거죠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박정관 의장 : 남동수 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시도 예산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3차 이사회때 각 시도에서 관심있는 시도에 확정하고 지정을 해주는게 예산확보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동수 이사 : 내년도 대회를 올해 공모해서 올해 확정이 되어야지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맞습니다.

남동수 이사 : 그걸 당해연도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저번 광주처럼 그렇게 되는겁니다.

문경로 부회장 : 남동수 이사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미리 해야합니다.

박정관 의장 : 올해 하반기에 시도에 지정이 되면 예산확보가 더 쉬워질겁니다.

김태열 부회장 : 수원이나 용인은 어울림대회를 크게 개최하던데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범주 사무국장 :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협회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남동수 이사 : 경기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은 예산이 많습니다. 수원,용인 이런곳은 자체예산으로도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곳에서는 시군에서 하기 엄청 힘듭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시도 전무이사분들이나 사무국장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체육회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가능한데 광주를 예를 들면 광주회장님께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해서 다른 시도분들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였는데 체육회에서 3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통합대회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통 서울대회 빼고는 어울림대회로 한 대회정도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어울림 대회로만 진행을 하면 장애인체육 지원사업 규정에 안맞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서울오픈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 하셔서 기금말고 자부담이나 지방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하는 통합대회가 이런 의미입니다. 열악한 지방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광주같은 경우 개최를 못하여서 기금사업인데 다음해부터 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사전에 미리 배포해 드려서 읽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의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제2호 심의안건인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2호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이 안건 역시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고 사업계획 및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평가도 아직 안 되었고, 사업별 예산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대비 예산을 계획하였고, 차후 변동이 있을시 이사회의 의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12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를 한번 보시면 15페이지하고 36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이 저희 수익 금액이고, 오른쪽이 예산지출 금액입니다.

지출액에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서 우측항 제일 하단에 소계에 1천7백7십만5천

243원이 잉여금으로 되어있는데 36페이지를 보시면 2천3백2십만5천243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들이 올해 CMS라는 후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변사람들로부터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정기 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매월 1만원정도 자동이체를 받아서 협회운영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2월 달에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6백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주변분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한달에 만원 정도 금액이면 부담이 덜하고 세금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는 잉여금으로 2천3백여만원을 잉여금으로 이월 시켜서 협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국제대회가 장애인체육회가 감사에 지적받아서 대구, 부산, 서울이 분리 되어서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다시 국제테니스연맹에서 다시 합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좀 더 힘있는 외국선수들과 대결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국내 선수들이 수상할 기회가 더 적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합쳐서 국제대회가 진행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사무국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 중에 국가대표훈련 국제대회 참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2천5백만원정도 받았습시다. 국가대표 훈련예산이 1천5백만원정도 더 늘거라고 훈련육성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2018년도와 많이 달라진 부분이 국가대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2018년도까지는 훈련예산(안)에 국제대회 참가지원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중에 40%정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

2억2천5백만원 중에 약 8천만원 정도를 국제대회 참가지원 금액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문체부에서 지침사항으로 국제대회 참가지원 사업자체를 상시 훈련 사업에서 분리시키라는 지침입니다.

25개 단체가 지금 국제대회를 참가하는 단체입니다. 국제대회 참가지원 사업

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총 7억입니다. 7억가지고 25개 단체가 나눠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단체 사무국장들이 훈련육성부하고 협의도하고 요구를 해서 2020도쿄패럴림픽도 있고 해서 랭킹 쿼터를 따야 합니다.

국제대회를 더 많이 참가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참가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다른 방안으로 훈련예산에서 전지 훈련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 사용이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은 몇 년째 한인경 선수 제외하고는 고정입니다.

감독 코치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인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엘리트 체육처럼 상비군 제도를 도입을 하던지 실업팀에서 감독, 코치, 선수들 훈련, 급여 다 실업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체육회에 올려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도 좋고 해외 나가는 것도 좋지만 실업팀 선수들은 실업팀에서 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중간급 선수들을 훈련원에서 훈련시키는 방법이나 체육회하고 사무국에서 모색을 해서 100일이면 30일 정도는 신인선수들 처럼 상비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사업계획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상비군 제도가 장애인체육회 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국가대표와 상비군 신인선수도 그렇고 집중과 선택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열 부회장 : 국가대표선수들은 실업팀에서 급여를 받는데, 국가대표선수들만 너무 해주지 말고 국가대표 아닌 선수들도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문경로 부회장 : 사무국에서 체육회 행정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계속 강조를 하다보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정관 의장 : 지금 다른 단체에서 예산에서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범주 사무국장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에서도 상비군 예산이 따로 나옵니다. 경기단체 선수들 성적이나 나이대를 파악을 해서 그 쪽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하고 신인하고 중간정도에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실력이 비슷하거나 나이가 좀 더 어려야 상비군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이도 고령화가 많이 되어있고 국가대표선수들과 실력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신인선수가 좀 더 유입되고 발굴이 많이 돼서 신인 선수가 실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으로 상비군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지방에서 선수들 훈련하는거 보면 여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랑 분리는 되어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전문체육하는 사람들 몇 명으로 보입니까? 제가 봤을때는 얼마 안됩니다.

박정관 의장 : 선수층이 워낙 얇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층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여건들을 좀 더 튼튼하게 해놓을 수 있는 예산이나 다른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신인선수 발굴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전반적인 여건이 되어야 선수층도 더 두터워지고 기회나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간 치열한 경쟁을 해야 실력이 늘지 이러한 형식이면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범주 사무국장이 잘 알아봐서 선수들 몇 명이라도 더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수민 부회장 : 상비군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대표선수들이 거의 몇 년째 같은 선수들이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봤자 국가대표 자리는 정해져있다고 다른 선수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명정도는 같이 간다던가 이러면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닫고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관 의장 : 선발전을 해도 그 선수가 그 선수입니다. 선수층이 워낙 얇다보니...

이수민 부회장 : 그니까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가면 다른 나라 선수들도 보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열 부회장 : 저번에 한샘에서는 선수를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실업팀선수들 외에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대표선수가 되지 쉽지 않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누가 생활체육에 가서 훈련을 시켜야되는데 가보면 힘들다고 운동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문 이사 : 이수민 부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이 참혹합니다.

선수층 자체가 별로 없고, 신인선수들이 발굴되지 않고 몇 년째 이 선수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실력이 좀 부족한 선수가 같이 가면 그 선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선수를 그렇게 내보내는 것 보다 문경로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상비군 제도를 활용하여서 그 선수들이 전체 국가대표 훈련 기간중에 20~30일 정도라도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줘도 장애인테니스협회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관 의장 : 실업팀을 하나 더 만들면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볼려고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장 큰 숙제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태열 부회장 : 사무국하고 나인철전임지도자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저번 확대에 관해 다음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박정관 의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거 국제대회를 보시면 서울코리아 오픈은 왜 1억5천만원이고 대구,부산오픈은 왜 3천만원이냐고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오픈은 서울시예산을 따로 협회에서 확보를 하여서 서울시에서 1억하고 체육회에서 주는 예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저희 6천만원 예산에서 5백만원씩 대구하고 부산에 내려줘서 2천5백만원을 3천만원씩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의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제3호 심의안건인「2019년도 국가대표 확정(안) 심의」를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3호 「2019년도 국가대표 확정(안)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2019년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확정 심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발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4조, 12조, 13조, 14조, 16조에 의거해서 공개 선발 후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의결 한 후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선수 및 지도자 선발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선발은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남자 6명, 여자 2명, 쿼드 3명 총 11명이 참가하여 남자 3명, 여자 2명, 쿼드 2명 총 7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지도자 선발은 공개채용으로 3명이 응시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3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국가대표선발건의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관 의장 : 특히 남자선수는 6명이 참가하여 3명이 선발되었는데 여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주연선수와 한인경선수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수를 더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결과 보고 자료에 국가대표 결과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한 결과 2018 인도네시아 장

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자복식 은메달, 쿼드복식 은메달, 쿼드단식 김규성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신 이사님들께서 보시면은 격려해주시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9년도 국가대표 확정(안) 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규정안건은 문경로 부회장님이 일괄 상정을 해달라는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박정관 의장 : 다른 이사님분들도 동의하시는지요?

부회장 및 이사 : 동의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문경로 부회장님께서 안건 일괄 상정을 제안하심에 따라 사회자가 일괄 안건에 대해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4호「규약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 제5호「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 제6호「회계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 제7호「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 제8호「국가대표 선발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를 일괄 상정하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문경로 부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회장님이나 이사님들도 다 동의 하시는 거죠?

부회장 및 이사 : 네. 동의합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일괄 상정을 하였는데요. 이범주 사무국장이 꼭 알아야할 내용

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이번 이사회 안건 중에 규정 개정건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18년 12월 12일날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건으로 가맹단체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정관 규정과 통일 및 자구수정 후 개정하여 이사회 개최 후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회계, 사무국운영,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지적사항으로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그러면 4호부터 8호 안건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로 부회장 :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건 제4호「규약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 제5호「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 제6호「회계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 제7호「사무국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 제8호「국가대표 선발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건은 일괄 원안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의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제9호 심의안건인「법제·상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9호 「법제·상별위원회 구성(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법제·상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규약 제38조 각종위원회의 설치의 의거 법제·상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와 위원구성에 대해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상벌위원회는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본 협회 임원, 장애인 선수출신, 여성,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로 구분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협회 직원중에 간사 한 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본 협회 수석부회장님이신 김태열 부회장을
위원장님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부위원장으로는 김웅태 한국테니스지도자협회
사무국장이신 체육전문가 분을 모실 예정이고, 위원에는 이용로 서울시장애인
테니스협회 부회장이시면서 본 협회 이사이신 이용로 이사님을 모실려고 합니
다. 이상호 위원은 법무법인 재유/변호사 분이십니다. 법률전문가로 모실려고
하고, 한윤자 이사님을 위원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한국여자테니스연맹 이사이
시면서 본 협회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간사에는 사무국장이 할 예정입니다. 이
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정관 의장 : 첨부된 내용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문경로 부회장 :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법제·상벌위원회 구성(안) 심의」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제10호 심의안건인「임원 보
선(안)」을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10호「임원 보선(안) 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 이사님으로 계시는 정동윤 이사님이 부회장님으로 되시고요 부회장님 두 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저희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봐주실 분이 정동윤 이사님으로 생각을 하여 박상욱 부회장님과 정동윤 부회장을 보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님으로 이근태 코리아하이텍 대표님과 이이환 길사랑 장학사업단 부사장님을 이사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부회장 : 박상욱 부회장님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본부장을 하였고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시고 테니스 붐을 조성하는데 일등 공신입니다.

저희 협회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회장님이십니다.

이이환 이사님도 한국도로공사 퇴직하시고 길사랑 장학재단 부사장이시기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인분들도 많이 보셨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하시고 테니스를 좋아하셔서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김영복 이사 : 이근태 이사님을 추천한 이유는 전국 테니스 동호인들이 아실 정도로 테니스를 수 년 동안 치신분입니다.

테니스에 관심도 많으시고 테니스 관련해서 글쓰고 홍보관련 많이 좋아하십니다.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에 상당한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였습니다.

박정관 의장 : 보시면은 이력서에 박창문 이사님이 협회에 도움을 주실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창문 이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창문 이사 :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테니스협회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활동력있는 이사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해야만 협회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섭 이사님은 현 여주시테니스협회 수석부회장으로 계시고 테니스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습니다. 저희 협회에 들어오시면 이사님들과 협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분이라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순 이사님을 추천한 이유는 경기도테니스연합회에서 많은 사무직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동료 테니스인들이 칭송할 정도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서 저희 장애인테니스협회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관 의장 : 저희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 의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도 의견 없으시면 「임원 보선(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한 뒤에 저희 새로오신 박상욱 부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제10호 「임원 보선(안) 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박상욱 부회장 : 방금 소개받은 박상욱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참석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참관하게 해주신 회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협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부회장으로 선임되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테니스 실력이나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볼 때 제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테니스 시작한지 4년도 안되었고, 테니스의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협회 사업과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경로 부회장 : 상반기나 하반기에 임원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게 어떻습니까?

박정관 의장 : 알겠습니다. 푸짐한 상품을 걸고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안건은 심의 되었고요 혹시 기 이외에 다른 기타 의견들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열 부회장 : 실무부회장은 이사회 안건은 아닌지요?

박정관 의장 : 네. 이사회 안건은 아닌데요. 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이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실무적인 부분은 김태열 부회장님께서 2년 동안 열심히 봐주셨는데요. 김태열 부회장님 역시 다른 생업에 일이 생기셔서 협회일에 전념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부회장님이 되실 정동윤 이사님께서 협회에 실질적인 일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김태열 부회장님께서 하셨던 협회 실무에 대한 일은 앞으로 정동윤 이사님께서 일을 조금 도와주시는 것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실 정동윤 이사님에게 박수드리겠습니다.

정동윤 이사 : 부족합니다만 여러 부회장님들 특히 문경로 부회장님은 장애인 테니스협회에 산 증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후배분이지만은 협회에 좋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존경하는 박정관 회장님 말로써 설명을 못 드립니다. 협회를 위하여 너무 열심히 하시고 부족합니다만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 부회장 :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오픈예산작년에 처음 1억을 받았었는데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뛰셔가지고 안주겠다고하다가 5천만원 준다는 예산을 1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까지만 받으면 계속 서울시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경로 부회장 : 임원보선은 대의원총회 보고사항 아닙니까?

이범주 사무국장 : 맞습니다. 체육회에도 보고해야합니다.

이송 감사 : 기타사항에 말씀 드릴려고 말씀 안드리고 있었는데 감사를 해보면 보고하는 결산 내용은 기업회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 지출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퇴직금에 대해서 봤더니 퇴직금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전에 계셨던 분들이 퇴사하면서 퇴직충당금을 적립을 해놔야 하는데 적립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퇴직하면서 많은 금액을 퇴직금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금을 요청할 때 인건비에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이 한 달치를 적립을 하게되는데 매년 급여가 조금씩 오르다보니까 계산할 때 과거의 것 까지 계산할 때 금액이 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체육회에도 말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면 한 5백여만원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가 안되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관 의장 : 이 자료를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온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나요?

이송 감사 : 바뀌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년에 하루 이틀 와서 급하게 해놓은걸 보다 보니 회계 규정이나 상위단체의 결산서류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간 즈음에 한번 상위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번 체육회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상위단체 회계규정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안 바꾸기에는 지적사항이라 약간 시늉만 한거라서 19년도에는 시간을 내서, 제가 현실적으로 와서 작업하기는 좀 힘들고 실무회계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게 향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재무상태표까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속초에서 오신 변성수 이사님

변성수 이사 : 사무국 하고 우리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 자료가 공개되잖아요?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하다 보면 발전적인 방향을 계속 말만 하고 그러는데 향후부터는 지난해에도 좋은 성적 거두었지만 우리 이사회 내부에서는 또 부족한부분이 뭐가 있었나, 예를 들어 2019년도에는 중점사항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차기부터는 이사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중점사항 중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실제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관 의장 : 남동수 이사님은

남동수 이사 : 저는 신인선수, 이번에 충주에서 신인선수가 발굴되었는데 11살이고 저희 협회에서 월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앙도 여력이 되면 지원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복 이사 : 저는 다른게 아니라 체전에 따라갔었는데, 다 좋았었는데 술들을 다 너무 잘 드셔서 제가 좀 고마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오희심 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동윤 이사 :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오희심 이사 : 저는 자주 참석했는데 오늘 좀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결산보고서랑 예산안이 다 너무 잘 되있어서요,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관 의장 : 우리 한윤자 이사님

한윤자 이사 : 저희도 국제대회 있을 때, 한번 참여해서 국내에서 국제대회 보는 것과 아시안게임이라던가 참석해서 어떻게 돌아가며 시합이 진행되는지 응원차 가면서 참여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2020년도에 일본 패럴림픽에 협회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 줄 수는 없을까?

이범주 사무국장 : 올해 잘 쌓고 사업을 잘해서

정동윤 이사 : 50%는 해줬습니다 옛날에 주원홍 회장님 계실 때...

김태열 부회장 : 옛날에 기부금 많이 들어올 때 영국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영국때도 많이 가셨죠

박정관 의장 : 2020년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동경에서 있으니까 그때 한번 패럴림픽에 임원단들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한윤자 이사 : 왜냐하면 국내대회는 저희가 수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걸 아는데 해외 나가서, 제가 일반 테니스 선수출신이기 때문에 대회도 가고 했지만 장애인 하는 것은 해외 나가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박정관 의장 : 저도 못 나가봤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보시려면은 올림픽보다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보셔야됩니다. 세계선수권대회 가서 보셔야지, 올림픽은 일반인하고 똑같이 해서 세계선수권은 틀리니까 그걸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박정관 의장 : 그럼 2020년도 세계선수권이나 패럴림픽 둘중 하나를 가는걸로 협회에서 추진해봅시다

한윤자 이사 : 이렇게 임원으로 있을 때 이런 기회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문 이사 : 올해는 저희 협회 이사님들하고 박상욱 부회장님하고 저희가 운동을 통해서 협회가 모여서 도약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정관 의장 : 양평에서 하면 되겠네요

박창문 이사 : 예 좋습니다

박정관 의장 : 이용로 이사님

이용로 이사 : 아까 문경로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세컨드로나 오픈 등급에서 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선수출신이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변함이 없고,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실업팀에 있으니 때로는 다른 선수들은 운동하고 싶어도 코치같은게 잘 안되있어서 그걸 좀 양보해서 한번정도는 그 친구들이 코칭을 받아볼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정동윤 부회장님

정동윤 이사 : 2020년도 도쿄 패럴림픽까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은 일들이 생길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관 의장 : 김태열 부회장님

김태열 부회장 : 내가 2년동안 실무 부회장직을 하는데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집도 꽤 멀고 퇴직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 보니 하루에 한번정도 열

굴을 비춰야 하는데 실무를 하게 되면 그런 여건이 안되서 미진하지만 제가 실무업무는 마무리하고 정동윤 부회장이 잘 하실거라 믿고 여태껏 잘 못했던 것은 용서하십시오

박정관 의장 : 마지막으로 이송감사님 끝으로 한말씀 하시지요

이송 감사 : 정동윤 부회장님께서 저를 일년에 한번 뵙는다고 하셔서 죄송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역할을 열심히 잘 하려면 현장도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는 대회에 시간나면 참여해서 협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비군, 신인선수 발굴 말씀을 들어보니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관 의장 : 이상으로 오늘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000))